

에큐메니칼심포지움 강연 I

민중신학의 성서적 근거

안 병무 (한국신학연구원)



序

민중신학은 성서의 재발견과 한국 민중의 재발견이 마주침으로 생겨난 것이다. 탄압으로 하던 한국의 민중의 현상이 성서의 민중적 성격을 발견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래에는 성서를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론으로 봤다. 이에 Luther가 성서를 어린아이 Jesus가 말구유에 누운 것이 성서라는 명언을 남겨 성서의 문자주의에서 해방되는 계기를 주었음뿐 아니라 성서의 해석권을 “성서를 성서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라”고 하여 사실상 성서 해석의 특권층을 제거함으로써 평신도 한사람 한사람이 성서해석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성서의 해석영역이 교회에서 대학으로 옮겨짐으로 성서를 역사학의 대상으로 삼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이파문을 일으키고 교회의 탄압이 있어 많은 곡절이 있는 관계로 그러한 자유가 실제로 실효하게 된 것은 불과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을 따름이다. 그 결과의 소극적인 점을 한가지로 집약한다면 역사의 예수에 대한 불가지론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마침내 역사의 예수는 의미가 없고 Kerygma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고착되었다. 그러나 그런 결론에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까닭은 체계만의 말대로 역사의 예수를 댄 그리스도론은 결국(Docetism 가현설)에 빠지게 되겠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결코 이념사가 아니라 역사의 한사건에 의해 말단이 되고 그를 원천으로, 중심으

로 지속되어온 것이다.

바울은 이사건을 십자가 사건에 집약했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까지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사건을 Paul이 역사의 한 인물 예수에게 이러한 단독사건화했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객체가 되고 그것을 향한 사람들은 주체가 되어 이른바 주체의식이 함정에 빠져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 몸부림쳤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Hellenism의 책임도 있지만 다분히 인격(Personality)이라는 가공적 개체를 극대화하고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한 서양에 책임이 있다. 어떻게 2천년 전 팔레스틴의 한 청년의 운명이 오늘 여기 사는 우리와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70년대의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철저한 물음, 아니 질문이 됐다. 그 상황은 단적으로 神不在의 고난의 현상 이었다. 그런 현장에서 예수를 찾는 일은 역사상대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물속에 뛰어들어 나를 건진던 자와 더불어 역사하는 그런 이(者)어야 한다. 이런 정황에서 예수를 재발견하고 민중을 발견하게 한것은 마가복음이다.

I. 마가복음은 바울의 모든 편지에 대해서 극적 전환을 한 새로운 문헌이다. 그 사이에는 역사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서술법에서, 언어에서, 그리고 내용에서 두

것이 나타났다. 그것은 볼트만등이 말하듯 결코 확대된 케리그마가 아니라, 케리그마화한 그리스도교에 제동을 걸고 마가의 선 삶의 자리와 예수 전승중 마가가 쓴 그 현장과 호응되는 것을 선택했다. 바울은 헬레니즘 영역의 지식층의 세계관을 의식하므로 변증적 논리를 전개하는데 대해 마가는 예기에서 시작해서 예기로 끝낸다. 그 예기는 전형적인 민중언어이며 그 내용은 개념적 실득이 아니라 하나의 산 삶을 통채로 제시한다.

II. 마가는 예수의 교훈집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도그마(Dogma)를 뛰어 넘고 어떤 인간집단과 더불어 행진하는 예수다. 석가처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입산해서 도통함으로써 날바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그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중속에 들어간다. 그가 있는 곳에 민중이 있고, 민중이 있는 곳에 그가 있다. 처음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Oklos라고 이름 부른 것에 충격을 받았다. 마가에 36회나 이 단어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Oklos 가 노예, 고용병, 농노동 가장 비천한자들에게 적용되는 명사다. 그래서 Oklos 가 예수에게 대하는 자세와 예수가 이에 대하는 자세를 분석해 본 글을 썼다. 이 관찰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는 Oklos에 대해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무조건적이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보장을 다짐하지 않고 단지 현재 상태를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현재

예수는 왕이다. 그 왕이란 현대어로 말하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 곧 민중이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민중의 죽음이었다.

상태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억압 또는 버려진 상태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런 조건없이 그들과사귀는(Koinonia)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양면으로 부각된다. 하나는 도대체 그런 자들만이 예수에게로 물러왔다. 병자들, 가난한자들, 사흘씩이나 먹지 못한 5천 여명같은 그런 자들만이 그에게 물었다. 이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계층은 그를 경원했다. 그런 계층은 서기관 또는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자주 대신하여 등장한다. 등을 돌리는 부자, 여자를 산 사람, 발을 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시험 해 보기 위해 그에게 오는 것을 거절했다. 반면에 예수의 행태에서는 이 점이 뚜렷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2:16)고 한다.

바리새체제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되려면 여러 규율중 음식 먹음에 하는 정결 예식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하 아레츠'로 취급 받는다(J. Jeremias) 그런데 예수는 오를로스를 불러 모으고 무엇이든지 밖으로 부터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7:15)고 한다. 이것은 회교적 지지성애인가? 화잇칼라족에 대한 무시 아닌가 그는 바로 굶주린 집단들을 목자없는 양처럼 붙잡혀 여겼다. 누가 저들을 정죄하나? 예수는 단 한번도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저들을 정죄하는 자들만을 비판했다. 이런 편애적 자세는 큐(Q) 자료에서 여러비유등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마가에서는 실제로 그런 무리와 더불어 함께 하는 예수가 걸어들 뿐이다.

III. 이와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또 다른 특색이 있다. 그것은 예수가 바리새파들이 율법체제를 만들고 민중을 그에게 맞게 살도록 강요하고 옛네파가 엄격한 공동체의 규율을 만들고 그곳을

찾는 자를 혼란했고 현대에 공산주의가 푸로레타리아라는 개념 설정을 하고 역사를 계급투쟁사로 봄으로 프로레타리아에게 정신적으로 의식화시켜서 총을 메고 전선에 나가 죽게하는 것을 혁명의 길이라고 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자중 일부가 어떤 투쟁의 프로그램 을 만들고 민중을 투사로 몰므로 사령 탐과 희생자가 구별되며 혁명은 인간을 위한 것인데 어느덧 인간 하나하나의 인권이 무시되 버리는 현상에대해서 예수는 저 민중에게 어떤 투쟁 프로그램 을 제시하고 이른바 의식화 작업을하므로 혁명의 완수를 위한 희생의 제물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어떤 이데올로기도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 싸우며 투쟁이라는 안목에서 볼때 거의 무의미할 뿐 아니라 장에 되는 병자, 약자, 그리고 버려진 자들 이른바 인간들이 쪼개져치러할 아는 저들의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잃은 양 한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를 찾아떠나는 목자의 비유에서 보여 주듯이 했다. 하나님의 급속한 도래라는 선언은 바로 민중의 희망의 집약이었다.

IV. 계속 질문을 받는 문제에 언급하겠다. 그것은 도대체 민중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데답에 직접 옹할 흥미가 없다. 까닭은 그것이 민중의 정체를 흐리게 할뿐 아니라 나가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실제로서의 민중을 가두워 버리는 계도 역할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개념화 하려는 것은 지식인의 버릇으로서 왕왕 지적 유희에 빠지게 한다. 그 대신 다른 측면에서 이안에서 찾아보시오 할수는 율타리를 그어볼수는 있다. 나는 마가복음에서 민중을 찾아보시요하고 싶다. 나는 전에 마가의 오를로스를 일일이 찾아서 그 성격을 표

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마가가 전한 예수라는 사건 전체에서 민중의 상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말은 예수와 오를로스를 주객으로 구별 말고 그것을 통체로 더불어 사는 그 관계에서 민중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갈릴리의 민중과 예루살렘의 민중중 어느것이 민중이나? 예수도 민중이나? 하는 질문 따위는 무의미하다. 마가에 등장하는 예수는 서구에서 발달한 개인(Individuum) 인격등에서 말하는유아독존적 개체가 아니라 집단성(Korporativ, Kolkertiv)을 지닌 명사다. 마가에 서술될 전기적 요소는 그의 이력서가 아니라 사회전기(Social Biography)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에서 민중을 떼어 놓고 보면 그의 참 모습을 알 수 없으며 반대로 그 민중을 예수와 떼어놓고 관찰해도 민중의 참모습을 모른다. 그것만 이 아니다. 예수와 그리고 민중을 대결하는 그 관계까지도 제외될 수 없다. 그 대립관계에도 민중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이 민중의 장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고정화되는 개념정립을 거부하는 것이다.

V. 위의 전체의 구체적 예로서 예수의 수난사를 일부터 구별해서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암중모색한 한두가지를 말 하겠다.

예수의 수난사는 한 개인의 수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민중의 애환을 극적으로 표상한 것이다. 우리는 마가의 수난사를 읽으면 놀랐겠다. 이유는 그 안에 어떤 종교적 초월 현상도 완전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판을 치는것은 비리와 물리적 힘이다. 갯새마네의 장면에서 억지 재판관을 거쳐 십자가에처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배신, 배반, 그리고 음모, 위증, 약탈, 처형이 있을 뿐 그것을 구성하는 유신론자나 어찌하면(11페이지에 계속)

되고 가공할만 하다. 이 병력과 화력이 동시에 이 좁은 한반도에서 터지게 될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이 때는 6. 25때의 파괴와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통일이 우리의 悲願이기는 하나 그러나 내 민족을 절반 이상 죽이면서 까지 이 비현을 이루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우리 주위의 4 대 강국들도 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사태변혁을 원치 않고 있는것 같다. 전쟁은 싫다. 7. 4 공동성명의 평화적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것이다.

② 어떤 사람은 이런 엄청난 폭력의 결과를 가상하여 남북의 군비축소를 제의하나 그것도 이상주의에 흐른 더 큰 비극을 몰고 온다. 그러자면 남북의 불신증조부터 제거해야 된다. 35년간 지속되고 축적된 이 불신이 쉽게 없어질 수도 없다. 이것은 말 보다는 행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일은 먼저 양쪽 정권담당자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

그들의 말과 정책이 표리부동하지 않은 정직한 말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또 양쪽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려야 될 줄 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기 민족의 힘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시국이 불안하다고 이민을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우리의 때는 이 땅에 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③ 경제력, 국력의 축적

경제적 자립은 민족적 자주성의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이 곧 민족통일의 지름길로 통하게 된다.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경제적 예측은 곧 정치적 예측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경제적 자립은 곧 그 민족의 생존 기반이 된다. 또한 그 민족이 당면한 여러가지 민족적 문제의 해결 내지 결정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타산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경제행편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경제의 외국 의존 특히 대일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나 우선 경제인들은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이런 경제활동을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제적이유는 다시 사회에 적절히 환원됨으로 민족적 위화감이 없는 복지사회 건설이 민족통일의 첨경의 하나로 본다.

④ 통일논의에 관한 토의의 자유분위기 조성

한국교회로서도 헌시점에서 민족통일에 관한 묘안은 없다. 대안도 없다. 우선 초보적 단계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동안 일부 재야정치인이나 개인이 전개한 통일논의가 있었으나 이런 논의들은 어떤일 지면 사정으로 회생되었다. 이런 의견들은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추진한 운동이 아니었으므로 반공법, 보안법에 저촉되어 이런 통일논의를 전개했던 민간인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따라서 아직도 일반에서는 통일논의를 회피하거나 이를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교회도 이런 경우에서 제의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비원인 민족통일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민족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면서 바람직한 결론과 민족적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

따라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거나 계획적인 여론 분열 획책이 아닌 토론은 자유롭게 허용되면서 국민이 이 문제를 그들의 관심의 대상 밖에 두는 일은 막아야 될 줄 안다.

(5페이지에서 계속)

도망친 제자들도 기대했음직한 신의 개입 따위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것은 회람문학에 나오는 한 비극적 영웅의 최후로 서술되지도 않는다. 그저 힘앞에 꼼짝 못하고 다소곳이 죽어가되, 오직 하나님만 찾다 죽어가는 것이다. 이제 한 개인 한 유대천년의 고유한 우발적 비극이나?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아니 복음편자는 그것을 이사야의 수난의 종의표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 수난의 종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개념인 것이다. 그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인자등 메시아적 칭호도 집단 개념인 것이다. 바울이 아담-그리스도 유형론을 말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집

단이 역사를 통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바로 그런 집단이 당하는 현장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Ⅵ. 이렇게 무능한 죽음. 그 민중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나? 아무저항도 없이 손에 바늘, 돌 하나 지지 않은 예수 그가 로마패권을 한순에 켜 빌라도법정에서 초라하게 당하기만하는 마당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니가 침묵을 계속하던 예수는 당당하게 "네발대로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무력한게 무슨 왕이냐? 그렇다! 그는 왕이다. 왕이란 현대적 개념으로 하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 즉 민중이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 왕은 칼로써의 악순

환을 제복숨으로 내대므로써 斷하는 의미에서 왕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악의에 찬 뜻에서 민중신학은 폭동신학이나 운운했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치로 해버리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민중신학은, 눈은 눈으로, 복수가 복수를, 되는 되로라는 악순환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처럼 수난만 당한 민중이 더이상 그런 도가니 속에서 희생물이 되기 싫어 몸을 내대어 그 악순환을 斷한 것이 민중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 한일이 옳다. 이들이 새 역사의 주인이다. 이들이 이겼다고 하느님이 오른손을 번쩍켜든 사건이 부활사건이다.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민중의 서, 마가의 민중사회 전기의 결론이다.